미국, 이란에 최후통첩…트럼프 "무조건 항복하라"

NSC 회의 개최…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개입 방안 논의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작전 검토…"인내심 줄어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향후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이란의 '이슬람 신정(神政)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방안까지 시야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take out)라는 표현 뒤에 괄호를 사용해 '살해!'(kill!)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란이) 민간인이나 미국 군인들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별개의 SNS 글에서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글에서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도 썼다.

특히 이란 제공권 장악의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We)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제공권 장악을 지원했음을 부각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SNS를 통해 사실상 대이란 '최후통첩'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 상황실에서 약 1시간 20분간 NSC 회의를 개최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하거나 공습에 동참하는 등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중동 지역 미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F-16, F-22, F-35 등 전투기와 여타 군용기를 중동에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군은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한 뒤 중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31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도 중동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날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미군 당국자들은 이번 전투기 등의 증강 배치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등의 요격과 같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공격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할 경우 중동뿐 아니라 국제적 안보 위협 요인인 이란의 핵무장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란 비핵화 목표를 위한 협상의 기회를 이란에 충분히 제공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도적 군사력을 갖춘 미군이 이란 핵시설 파괴, 더 나아가 이란 정권교체를 위한 공세에 동참할 경우 이란의 반격 여하에 따라 중동은 새로운 질서 창출 또는 분쟁 확대의 양 갈래 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 프로그램 전면 포기 등 '유화책'을 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후원을 받아온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전쟁'까지 마무리한 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국교 정상화 추진을 모색하는 등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시아파 무슬림'의 맹주인 이란이 항복 아닌 저항을 택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대외 군사개입 자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안보의 소용돌이에서 거리를 두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에 '다걸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보 정책을 조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정권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연합뉴스

美 "北 6천명 러 추가 파병 깊이 우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정권도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 있는 이들 노동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97호를 위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매체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 제거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위해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국제유가 급등

브렌트유 4.4% 올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17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보다 3.22달러(4.4%)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4.84달러로 전장 대비 3.07달러(4.28%) 올랐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5일째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 고조된 영향을 받았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태로 공급과 수요 균형이 팽팽했던 석유시장에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부각됐다"며 "이번 사안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금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 머물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10분 무렵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385.18달러로 전장 대비 0.1%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406.9달러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게 달러화 표시 금 가격을 보합권에 머물게 했다.

현물 은은 온스당 37.05달러로 전장 대비 약 2% 오르며 201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뉴욕증시 마감 무렵 98.81로 전 거래일 대비 0.9% 상승했다. /연합뉴스

'부패 유죄' 아르헨 前대통령,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

징역 6년형·피선거권 박탈

아르헨티나 정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좌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72·사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특정 사업자와 뒷돈 거래를 한 죗값을 교도소 대신 자택에서 받게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연방제2형사법원은 징역 6년 형과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받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해 가택연금을 허용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르헤 고리니 부장판사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2022년과 같은 피습 상황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다른 기결수처럼 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부통령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총격을 받을 뻔하기도 했다.

당시 암살미수범은 페르난데스 면전에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 안에 들었던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대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1950~2010) 전 대통령(2003~2007년 재임)을 이어 2007~2015년에 연임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68·가택연금)에게 몰아준 뒤 도로 건설 자금 등 일부를 받아챙긴 죄로 지난 1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일본, 급발진 이렇게 대처한다

승용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8년 탑재 의무화
실수로 가속 페달 밟더라도 시속 8㎞ 미만으로 억제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로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 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그동안 이 장치 보급에 힘써 현지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왔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3타경 81832	1	나주시 봉황면 신동리 374-13 480㎡[김철우 1/2지분전부]	답	34,030,000 34,030,0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374-14 1180㎡[김철우1/2지분전부][물건번호1:남동측으로소폭농로에접함]	답		
	2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산50-8 298㎡	임야	8,642,000 8,642,000	공부상지목임야,현황전.맹지
2024타경 4818	1	담양군 가사문학면 가암리 65-1 745㎡[농지취득자격증명요.동측일부면적인접지에서단독주택부지로이용중으로경계측량요]	전	55,460,000 55,460,000	수목포함.매각대상토지일부지상타인소유건물소재
2024타경 5804	1	나주시 용산동 298-1 956㎡[공유자박복순1/3지분전부.북측일부지상다른인접지번건물점유중으로보여지적경계측량요]	전	78,160,000 78,160,000	제시외수목포함[매각지분한함]
2024타경 75131	1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455-1 2175㎡[소하천구역미미한저촉있음]	전	43,500,000 43,5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4타경 80065	1	영광군 군남면 동월리 79-2 1794㎡	전	26,910,000 26,91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24타경 5422	1	동구 대인동 21 166.3㎡	대	965,792,000 965,792,000	일괄매각
		동구 제봉로 213 점포,실내사격장,여관,취사장 1층92.22㎡ 2층10.24㎡	기타		
2024타경 74206	1	동구 서석동 468-9 264㎡[김동석1/2지분전부]	대	266,254,400 266,254,400	일괄매각.감정평가상목록2공부상용도점포[1,2층],2층부분현재외국인숙소로이용중
		동구 백서로 180 1층113.38㎡ 2층114.71㎡ 부속건물 단층 공장39.66㎡ 일용품소매점1,2층각13.22㎡ 점포13.55㎡[김동석1/2지분전부] 제시외 숙소26.45㎡[물건번호1:제시외건물포함]	점포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4타경 6500	1	나주시 상야3길8, 4층에이570호 [빛가람동,중흥에스-클래스메가티움2차] 28.4189㎡[전세사기피해자법제20조의거임차인우선매수권있음]	오피스텔	62,000,000 62,000,000	
2024타경 6739	1	나주시 상야2길16, 1동 6층 609호 [빛가람동,토담휴로스1차오피스텔] 28.55㎡	오피스텔	63,000,000 63,000,000	
2024타경 74091	1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87, 제201동 제14층 제1403호 [쌍암동,첨단센트럴파크2차] 41.83㎡	오피스텔	174,000,000 174,000,000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관리비미납
2024타경 77267	1	동구 천변우로361-15, 19층 1921호 [수기동,아트시티리버파크모아미래도] 48.7419㎡	오피스텔	211,000,000 211,000,000	
[아파트]					
2024타경 6135	1	서구 화개1로59-2, 105동 5층 507호 [금호동,종원팰리스빌아파트] 84.9831㎡	아파트	311,000,000 311,000,000	
2024타경 6845	1	광산구 선운중앙로43, 203동 1층 101호 [선암동,광주선운지구이지더원2단지] 73.8321㎡	아파트	318,000,000 318,000,000	2024타경81945 [중복]
2024타경 76462	1	광산구 사암로271, 103동 1층 102호 72.475㎡	아파트	148,000,000 148,000,000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관리비미납
2024타경 79737	1	남구 독립로70-1, 101동 2층 204호 [백운동,백운우방아이유쉘] 84.9888㎡	아파트	371,000,000 371,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4타경 4962	1	나주시 죽림동 122-5 195.1㎡	대	77,515,900 77,515,9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2부속건물지붕골함석지붕으로개량
		나주시 남고문로 105-5 단층 43.9㎡ 부속건물 단층 창고17.28㎡ 제시외 창고등30.6㎡[장기간 공실상태로제반설비등하자여부유의]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4타경 76134	1	서구 양동로17번길16, 101동 2층 201호 [양동,제이에스파크빌] 78.6107㎡	다세대	185,000,000 185,000,000	
2024타경 79638	1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228-23, 101동 502호 [동명이다움] 84.9776㎡	연립주택	166,000,000 166,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5. 7. 3.[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5. 7. 10.[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해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해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해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해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해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서